

11월의 기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사무엘하 7장 6절>



1.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사 받고랑마다 비로 풍족히 적서 주시고, 음을 트인 싸들마다 크게 자라 알곡들이 맺도록 하셨습니다. 적당한 햇빛과 바람으로 나무들의 가지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2. 전쟁 중인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가자지 구 하마스 테러 단체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헛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으로도 이미 많은 군인과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버려 재건을 향한 희망의 불꽃마저 사그라질까 두렵습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 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한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 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선교를 향한 열정이 더욱 용솨솨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폭풍우를 이기는 믿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히브리서 13: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죄수로 몰려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가고 있었는데 그가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출발한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배 안의 모든 물건뿐 아니라 배의 기구까지 버리고도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 앞에서 담대히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사도행전 27:25).

이것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있을 때에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몰아치고 폭풍 구름이 몰려오며 모든 일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만 신앙 고백을 잊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경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믿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문이 있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요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를 결코 놓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폭풍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2023년 해외성회

<미국 북서부중보기도대회>



미국 북서부 지역 항구도시 포틀랜드에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기 위한 '미국 북서부중보기도대회'가 2023년 3월 13, 14 양일간 포틀랜드의 시티바이블교회(City Bible Church)에서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꿈과 비전을 가슴으로 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기도회는 미국 전 지역 400여 도시에서 모여든 기독교인들이 연일 3천여 좌석을 가득 메웠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비디오를 설치한 체육관과 중앙통로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

시티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북서부중보기도대회는 '비전을 보아라 기적을 기대하라 꿈을 이룩하라(Seeing Vision Expecting Miracles Fulfilling Dreams)'를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중보기도의 대가로 알려진 서구신세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조용기 목사는 기도대회의 강사들 중 유일한 동양인 목회자로 13일과 14일 양

일간 걸쳐 설교했다. 연일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 성도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한 성회로 기록되었다.

성회의 주강사인 조용기 목사는 기적을 이루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교했다. 조용기 목사는 "1958년 군용친막에서 5명의 성도로 시작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하고, 한세대학교와 베데스다대학교를 운영하고, 세계 최대의 기독교 일간지인 국민일보를 지원하며, 엘림복지타운을 통해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NGO인 선한사람들을 통해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라고 천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성막형 기도회 대해 언급하며, "성막들

에서부터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용기 목사는 모든 기도회 있어 성령의 임재를 강조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깊은 기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영감있는 설교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등 큰 은혜를 받았다. 한편 한세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성혜 목사가 참석,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피아노 특별 연주를 하였으며, 당시 재직중이던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장은 시티바이블교회 실업인들을 위해 특별 강연을 하였다.

미국 전 지역에서 찾아 온 사람들이 연일 시티바이블교회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기도대회는 피부색을 초월하여 각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장으로 이어졌던 성회였다

① 시티바이블교회 북서부중보기도대회 전경
 ② 기도회 대해 설명하는 조용기 목사
 ③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지속된 기도성회
 ④ 사무총장 시가끼 목사, 김성혜 총장, 조용기 목사 (우측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 좋은 하나님

첫째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알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감사는 믿음의 문제

둘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합 3:17~18)입니다.

3. 감사를 표현하는 삶

셋째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중 한 사람만 자기기가 나온 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않는가?”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누리려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지만 감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

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4. 감사의 유익

감사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감사하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캄캄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원망과 미움,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던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기란 결단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고 해서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나빠진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4차원 영성과 성령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타락하고 손상된 피조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죄에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 선을 행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다. 태초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영은 어디서나 임재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유지하고 양육하며, 만물에 생기를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만물 안에서 활동하고, 만물을 지탱하고, 만물에 생명과 운동을 주셨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창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써 산 영이 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3차원의 물질세계뿐만 아니라 4차원의 영적세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회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본래적인 인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에 따르면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피조물에게만 속해있는 자유의지는 혼돈되고 죄악된 것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며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 8권에서 성령께서 악한 성향들의 지배에서 자신을 점진적으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의 영향력으로 자신을 이끌어 주신 과정을 설명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인간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의 혼을 통해 인간의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이성과 의지를 부여하시며, 인간의 육체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기독교 영성에서 성령의 사역이 인간의 전인적 인격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하다면 4차원 영성에서도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리는 4차원의 영적세계는 성령의 영원한 세계이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성령은 3차원의 물질세계를 품고 있는 영으로 묘사되고 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4차원의 영적세계는 3차원의 물질세계를 포함하며 그 세계를 다스리신다. 성령은 혼돈과 공허의 물질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면서 3차원의 물질세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3차원의 물질세계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존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4차원의 영적세계에 속하게 되므로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영적 언어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셔서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꿈과 비전을 부화시키면 인간은 4차원의 영적원리인 하나님의 생각, 꿈, 믿음, 그리고 말을 3차원의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4차원 영성이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때 창조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과 4차원의 영성은 성령충만을 받기 위한 영성수련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성도는 3차원의 세계를 이끌어 가는 4차원의 ‘생각’ ‘꿈’ ‘믿음’ ‘말’을 소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꿈과 비전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하여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한 성령과의 지속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아갈 때에만 그 기능들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